



박 노 철 SK텔레콤 CIO

## 비즈니스 혁신통해 IT 조직역량 배가할 것

“통신IT는 기존의 비즈니스 지원 측면을 넘어 산업 자체를 만들 수 있는 부분으로 역할이 크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박노철 SK텔레콤 CIO는 통신IT부문의 역할 변화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CIO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예전에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쳤던 반면, 이제는 이동통신 회사가 아닌 유비쿼터스·컨버전스를 지향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비즈니스 지원 측면의 통신IT는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통신IT가 신규 가입·변경·해지·과금 등의 기존 역할에서 벗어나 U시터·RFID 등 다양한 산업 창출·지원을 추구하고 있다는 의미다.

SK텔레콤의 ERP, 사내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IT보안 등 IT인프라를 총지휘하고 있는 박노철 CIO는 NGM 오픈을 지난해의 최대 성과로 꼽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메인프레임 환경의 IT인프라를 유닉스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총 48개의 시스템이 대·개체됐다.

NGM 개발을 담당했던 조직은 프로젝트성 조직인 탓에 연말을 기점으로 해체된 상태다.

박 CIO는 “시스템을 오픈한 지 두 달 정도 됐는데, 정량적인 수치를 말하기는 힘들지만, 전체 비용이 줄어든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NGM이 고객 분석에서 캠페인까지 마케팅 전 프로세스를 지원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마케팅 톨의 활용여부에 따라 효용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CIO는 “기존 텍스트 기반 환경과 달리,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지원함으로써 무엇보다 영업현장에서 반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NGM은 회사 중심에서 설계된 기존 환경과 달리, 상품과 고객 위주로 입력키 등을 크게 변환했다. 특히 기존 환경에서는 프로그램 활용에 능한 전문 오퍼레이터를 통해 신규가입·해지 절차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한 두 시간의 연습만으로 누구라도 가능하게 됐다.

박 CIO는 “한 대리점 사장의 경우, 이번 NGM 가동으로 처음으로 가입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여직원 관리가 어려웠지만, NGM 오픈으로 직원을 뽑는 기준마저 바뀌게 됐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설명했다. 또, 박 CIO는 “NGM의 성공에 따른 우리의 역량을 자산화 할 계획으로, 소프트웨어 패키징,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방법론, 경험기술 등의 총체적인 요인이 향후 글로벌 사업의 전략적 무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의 NGM 오픈이 성공을 거두면서, 박노철 CIO는 벌써부터 ‘포스트NGM’을 고민하고 있다. 박 CIO는 “NGM을 오픈한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차세대를 얘기하지 않는다.”면서, “올해는 포스트NGM을 깊게 고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조직의 IT역량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전력투구할 방침이다.

박 CIO는 “기존 NGM 추진본부와 정보기술연구원이 합쳐지면서, 올해는 조직모양이 크게 바뀔 것”이라면서, “IT아키텍처팀과 서비스혁신팀이 새로 신설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비스혁신팀의 경우 비즈니스 릴레이션십 전담조직으로, 현업과의 관계 고려에 최우선을 두게 된다.

박 CIO는 “지금까지는 대형 프로젝트에만 매달렸는데, 내년부터는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아웃소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프로세스의 혁신, 즉 서비스 혁신이 조직이 지향해 나갈 방향이라는 부연이다.

박 CIO는 “올해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딜리버리의 고도화, 전사차원의 IT리소스 최적화, 경영정보 활용 고도화, 비즈니스 조직으로서의 IT재정비 등 4대 핵심 목표 달성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재화 기업은행 부행장

## 현업 요구 이전에 IT지원 이뤄져야

“금융IT는 음식점에서 밑반찬으로 제공되는 김치와 같아야 합니다.”

이는 늘 내부 직원에게 ‘김치론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업은행 CIO(최고정보책임자)인 서재화 부행장의 말이다. 금융IT와 김치, 언뜻 들으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서 부행장에게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

“김치는 어느 음식점에 가든 제공되는 반찬입니다. 그러나 이 김치를 손님이 찾기 전에 미리 가져다줘야 불편 없이 손님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음식점이 될 것입니다.” 즉, 은행의 IT부서도 현업에서 요구하기 이전에 미리 현업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찾아 IT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행 IT부서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서 부행장은 말한다.

과거 금융기관의 IT부서는 수동적으로 현업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IT지원을 실시하곤 했다. 따라서 당시에는 IT부서가 현업을 따라가는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현업의 요구 이전에 미리 신 성장 비즈니스를 개발, 오히려 현업 부서에 IT서비스를 선제안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선봉에 기업은행 IT본부가 서있는 것이다.

“과거 IT본부가 은행 전체적으로는 ‘잔밥’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선제안을 통한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어 주요 부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은행 IT본부 직원들은 능동적인 IT서비스 지원을 위해 항상 아이디어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서 부행장은 ‘딩크 탭’이라는 제안방을 내부 인트라넷에 만들어 직원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다. 이를 통해 실제 많은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고 이 중 일부는 현업에 선제안 돼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도 있다.

서 부행장은 “IT부문만큼은 국내 은행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고인 은행을 만들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IT본부 직원들의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은 ‘주요 IT전문가 집중육성’을 10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 진행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백업시스템 구축 완료, 보안시스템 컨설팅, IT전문가교육 컨설팅, EA(전사 아키텍처) 구축 및 컨설팅 적용 등 연초에 수립한 계획을 모두 완성한 상태다. 또 인터넷뱅킹 부분에 대해 국제보안표준 인증인 ISO27001을 획득했다. 현재는 전자 시스템에 대한 ISO27001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 ISO27001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하고 영국표준협회(BSI)에서 인정하는 국제 정보보호 관리체제다.

올해는 5대 주요 프로젝트에 집중할 계획이다. 서 부행장은 “이중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현재 컨설팅을 진행 중인 정보계재구축 프로젝트”라며 “오는 3월 컨설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컨설팅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단계별이나 빅뱅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시스템 구축에 바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외전산시스템 재구축 프로젝트도 올해 주요 사업 중 하나다.

기업은행은 이달 본격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해 오는 2008년 2월 완료를 목표로 두고 있다. 이번 국외점포통합시스템 구축 대상 지점은 뉴욕, 동경, 홍콩, 텐진, 선양, 옌타이, 칭다오, 호치민(사무소) 등 8개 지점과 올 초 인도와 중국에 개설될 2개 지점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기존에 개인, 기업 별도로 분리돼 있던 인터넷뱅킹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작업, 내부 시스템간의 보안 작업, 유비쿼터스 뱅킹 대응 작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기업은행은 지난 2004년 차세대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상품개발 기간 단축 및 24시간 365일 무정지 서비스 제공 등을 구현했다. 또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도 갖췄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업은행 IT본부는 산업자원부로부터 표준화대상, 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보호대상을 받았다. 또 민간기구인 CIO포럼에서 수여되는 금융부문 CIO수상자로 서 부행장이 선정되기도 했다. 